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와 휴대전화 의존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배상영** · 강윤경** · 안소영*** · 홍세희****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이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특히 최근 대두되고 있는 휴대전화 의존도의 조절된 매개효과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으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에서 중학교 1학년 패널의 6차 조사한 2015년의 고등학교 3학년 2351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측정 변수는 진로정체감을 종속변수, 사회적 자본(부모, 친구, 교사, 지역사회와의 관계)을 독립변수, 자아탄력성을 매개변수, 휴대전화 의존도를 조절변수로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친구, 교사와의 관계는 진로정체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사회적 자본이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다. 셋째, 부모와의 관계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이 휴대전화 의존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넷째, 부모와의 관계만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의존도에 따라 그 영향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 조절된 매개효과가 존재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의 긍정적 발달 및 영향을 위해서는 휴대전화 의존도를 감소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부모와의 관계가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하였다. 또한 친구, 교사, 지역사회의 관계를 증진시킨다면 자아탄력성과 진로정체감이 모두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서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으면 부모와의 관계가 자아탄력성과 진로정체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진로정체감, 사회적 자본, 자아탄력성, 휴대전화 의존도, 조절된 매개효과, KCYPS 2010

* 이 연구는 2020학년도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특별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College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Grant in 2020.).

* 이 논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임.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교신저자, seeehong@korea.ac.kr

I. 서 론

청소년기는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폭넓게 탐색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찾기 위해 역량을 키워나가는 시기이다(Erikson, 1963). Erikson에 의하면, 청소년기 주요 발달 과업 중 하나는 진로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는 본인의 진로에 대해 얼마나 안정적이고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낸다(김진아, 2019). 따라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성인기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 시기의 진로정체감은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진로정체감은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친구, 교사 등과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진로정체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사회적 영역 일부에 초점을 두고 탐구하는 연구가 있었으며(김민주, 김민정, 이선희, 도현심, 2018), 사회적 영역을 통합하여 하나의 문항으로 만들어 시행한 경우도 있었다(김해성, 조미숙, 2019).

그리고 진로정체감이 자아탄력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유화영, 2018)와 사회적 자본이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권지은, 2003; 김경수, 김화경, 2011; 황여정, 김경근, 2013)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사회적 자본이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태원(2019)이 저소득층의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이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바 있으나, 진로정체감이 좀 더 확립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미비한 실정이다.

한편, 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사용을 포함하여 휴대전화 의존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의 경우 98.9%가 SNS를 이용하고 있으며, 그 중 19.3%의 학생은 매일 5시간 이상 SNS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에듀동아, 2018). 해당 조사결과 중에서 응답자의 54.5%가 SNS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스트레스의 요인은 욕설, 비방, 악성댓글 등의 행위와 시간낭비, 개인정보 유출위험, 그리고 타인의 게시물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었다. 휴대전화 의존은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자아탄력성 등 개인의 성격과 부모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권오형, 문재우, 2018). 이는 결과적으로 진로문제까지 연결되기 때

문에 휴대전화 의존이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해성과 조미숙(2019)은 스마트폰 의존과 진로정체감의 관계를 분석하여 둘의 관계가 유의하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선행연구(김해성, 조미숙, 2019; 박태원, 2019)와 같이 단순 매개효과 분석으로는 휴대전화 의존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어렵다. 따라서 휴대전화 의존에 따라 그 관계가 달라지는지에 대한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자본을 하나의 요인으로 분석을 진행한 선행 연구들과 달리 사회적 자본(부모, 친구, 교사, 지역사회) 중 어떤 관계가 휴대전화 의존도의 영향을 받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이 휴대전화 의존도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자본(부모, 친구, 교사, 지역사회와의 관계)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사회적 자본(부모, 친구, 교사, 지역사회와의 관계)이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사회적 자본(부모, 친구, 교사, 지역사회와의 관계)이 휴대전화 의존도의 조절효과에 따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넷째, 사회적 자본(부모, 친구, 교사, 지역사회와의 관계)이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의존도가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여주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은 ‘진로’와 ‘정체감’이 결합된 개념으로 청소년들이 현재 자신의 진로를 얼마나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Holland(1997)는 진로정체감을 개인이 진로와 관련하여 목표와 흥미를 가지고 성격을 형성하며 재능을 통해 만든 청사진 혹은 심상이라고 하였다. 올바른 진로정체감은 자신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탐색 그리고 직업 세계의 이해를 높여 개인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을 도와준다. 반면, 진로정체감의 확립이 없으면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김해성,

조미숙, 2019).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진로발달을 성취하는 데 진로정체감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동시에 중심적인 과업이다(김성경, 2015).

진로정체감은 여러 사회적 요인과 개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확립된다(Holland, 1997).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이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었다. 세부적으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애착(이현주, 2010), 지지(오정아, 정윤태, 2015) 그리고 양육태도(김민주 외, 2018; 박미려, 양은주, 2017) 등이 진로정체감과 연구되었으며 대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와의 관계는 애착(박미려, 양은주, 2017; 이현주, 2010), 지지(윤초희, 2015), 친구 관계(김성경, 2015)의 측면에서 분석되었고 교사와의 관계에서는 교사와의 대화(이상길, 2006), 교사 관계(박은정, 이유리, 이성훈, 2016) 등의 요인으로 진로정체감 연구에 활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는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적게 연구되었는데, 김영애(2018)는 지역사회의 참여, 체험학습을 통한 지역사회 인식은 진로정체감 형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또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개인의 자아 관련 요인에 주목하여 진로정체감과 관계를 분석하였다. 자아존중감(김민주 외, 2018), 자아정체감(조한익, 김영숙, 2016), 자아탄력성(유화영, 2018)과 진로정체감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가 있으며 그 결과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 청소년은 진로정체감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은 Bourdieu(1986)에 의해 정의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었다. Ports(1998)는 Bourdieu와 Colman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정의를 발전시켜, 사회적 자본이 '상호 이익을 위한 조정과 협동을 촉진시키는 관계망, 규범, 사회적 신뢰'라고 정의하였다. 강현아(2007)는 사회적 자본을 개인 혹은 집단이 사회 관계망에서 얻는 자원이라 하였고, 배성만(2018)은 사회적 유대와 호혜에 사회적 지지 등을 포함하여 단순한 사회적 지지보다 넓은 범위로 보았다. Putman(2000)은 사회적 자본을 관계성에 초점을 둔 결속형 사회적 자본(bonding social capital)과 넓은 연결성에 초점을 둔 가교형 또는 연결형 사회적 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으로 구분하

였다. 즉,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 같은 비슷한 배경이나 특징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되고 강한 유대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연결망을 결속적 사회적 자본으로(김해성, 조미숙, 2019; Putnam, 2000), 해당 관계망 속 구성원들은 정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Steinfield, Ellison & Lampe, 2008).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은 부모-자녀 관계와 학교, 지역사회 등 가족 밖에서 형성된 사회적 자본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청소년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Coleman, 1988). Yoo(2018)는 부모-자녀 관계, 또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로 구성된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학업스트레스의 원인으로,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높은 경우 학업 스트레스가 감소된다고 보고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관계를 바탕으로 하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진로정체감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사회적 자본은 진로정체감을 높이는 주요한 영향 요인인 것을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3. 자아탄력성

Holland(1997)는 진로정체감이 자아탐색을 통한 자기이해와 직업세계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고 하였으며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자아개념과 진로정체감의 관계를 탐구하였다. 자아개념 중 자아탄력성은 환경에 따른 스트레스, 역경 혹은 위협에 융통성 있게 반응하여 행동적, 정서적 문제없이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는 개인의 내적 능력이다(Block & Block, 1980; Block & Gjerde, 1990).

자아탄력성은 진로관련 요인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자아탄력성은 진로효능감(김지연, 이기학, 2014), 진로성숙도(이경선, 남현우, 2011), 진로준비행동(백은경, 정은정, 2017) 등 진로 관련 변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의 연구에서 진로정체감과 자아탄력성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유화영(2018)은 자아탄력성 점수가 높았던 학생이 진로정체감 또한 높았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자아탄력성은 진로 선택 과정의 방해요소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진로 스트레스를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므로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이 두 요인의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주변 상황적 요구에 대한 대처 능력인 자아탄력성은 사회적 맥락과의 상호작용에서 형성되며 그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최근 여러 자아탄력성 연구들이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요소와의 역동적인 매커니즘에 주목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부모와 자녀의 유대관계가 좋거나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자녀의 자아탄력성이 높아졌고(김경수, 김화경, 2011), 긍정적인 친구와 교사 관계 역시 자아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황여정, 김경근, 2014). 더불어 이웃과의 관계도 유의미하게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쳤다(황여정, 김경근, 2014).

종합하면 청소년들을 둘러싼 사회적 자본이 긍정적일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아지고 이는 진로정체감을 증가시킨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사회적 자본과 자아탄력성의 관계 혹은 자아탄력성과 진로정체감의 관계 중 하나를 별도로 연구하였으며 세 변수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비하다.

4. 휴대전화 의존도

휴대전화 의존은 휴대전화에서 심리적 안정을 느끼고 휴대전화와 분리될 시 불안을 느끼는 심리적 의존을 의미한다(김해성, 조미숙, 2019). 휴대전화는 현대인의 일상에 필수적인 도구로 정착되었지만 이로 인한 휴대전화 중독이나 범죄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청소년의 과도한 휴대전화 의존은 대인관계 형성과 사회성 발달에 있어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에 따라 부모, 친구 등 주요한 대인관계 영역에서 낮은 만족도를 가져오게 된다(양돈규, 2003). 김병년(2018)은 청소년의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 및 의존이 이들의 건전한 발달을 방해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교우관계는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가 또래에 착이나 자아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송병국, 최창욱, 조혜영, 오민아, 2017)와 상반되는 결과로 휴대전화의 사용정도에 따라 또래 동질감을 높임으로서 친구 관계를 돈독하게 한다는 연구(박길성, 2001)도 있다. 즉, 교우관계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의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 이와 관련하여 휴대전화 의존도에 따른 교우관계에 대해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휴대전화 의존도의 조절효과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진로정체감과 휴대전화 의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노민정과 유진은(2019)은 휴대전화가 없는 학생보다는 가진 학생이 진로를 결정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하였고,

김해성과 조미숙(2019)은 스마트폰 의존을 감소시켜 진로정체감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휴대전화 의존도는 또한 자아탄력성의 위험요인으로써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었다. 정경아와 김봉환(2019)은 스마트폰 중독자를 고위험군, 잠재위험군, 일반군으로 나눠 각 그룹의 자아탄력성을 비교하였는데, 고위험 사용자군은 일반 사용자군에 비해 자아탄력성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다고 설명하였다. 선혁규와 백종수(2015)도 스마트폰 중독성이 심할수록 자아탄력성이 낮다고 하였다.

진로정체감, 휴대전화 의존, 자아탄력성의 관계나 진로정체감, 휴대전화 의존, 사회적 자본의 관계를 집중 탐색한 연구 혹은 진로정체감과 휴대전화 의존도, 사회적 자본, 자아탄력성과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다. 김해성과 조미숙(2019)은 사회적 자본과 휴대전화 의존도, 그리고 진로정체감이 매개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사회적 자본이 각각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휴대전화 의존도에 따라 그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논의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 자아탄력성, 진로정체감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휴대전화 의존이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영향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해당 조사는 전국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2010년부터 다단계층화집락표집 방법을 활용하여 표집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자료 중에서 중학교 1학년 패널의 6차(2015년, 고3) 자료를 활용하였다. 고등학교 3학년은 사회로 나아가기 전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있는 2351명을 대상으로 진로정체감 영향 요인에 대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2. 측정도구

1)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공인규(2008)의 진로정체감 척도를 수정하여 보완한 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 내용은 표 1과 같으며 총 문항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1점은 매우 그렇지 않다, 2점은 그렇지 않다, 3점은 그렇다, 4점은 매우 그렇다를 나타내어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1

진로정체감 문항

문항 내용	신뢰도
1. 장래에 내가 꼭 하고 싶은 직업 분야가 있다	.888
2. 부모님이 내가 원치 않는 전공학과를 강요하더라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장래에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 대체로 방향을 정했다	
4. 대학에 가서 전공하고 싶은 구체적인 분야가 있다	
5. 나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소신대로 직업을 결정해야 한다	
6. 현재 나는 어떤 직업 분야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분명하다	
7. 어릴 때부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직업 분야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다	
8.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미래 계획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2) 사회적 자본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는 패널 설문에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문항 10개를 사용하였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의 경우,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으로 나뉜다. 해당 문항은 허묘연(2000)에서 제작한 부모 양육태도 검사 총 43문항을 활용하여 원 척도의 부와 모 각각에 대한 질문을 부모에 대한 질문으로 수정한 후,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사용한 것이다. 문항 내용은 표 2와 같으며 총 문항의 평균값을 활용하였

다. 4점 리커르트 척도로 1점은 매우 그렇지 않다, 2점은 그렇지 않다, 3점은 그렇다, 4점은 매우 그렇다를 나타내어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사회적 자본-부모와의 관계 문항

문항 내용	신뢰도
1. 감독 -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866
2. 감독 -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	
3. 감독 -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돌아올지 알고 계신다	
4. 애정 -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5. 애정 - 내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신다	
6. 애정 - 내가 힘들어 할 때 용기를 주신다	
7. 애정 - 나에게 칭찬을 잘 해 주신다	
8. 합리적 설명 - 부모님(보호자)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게 하기 보다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 주신다	
9. 합리적 설명 - 내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혼내기 전에 먼저 왜 그것이 옳지 못한가를 설명해 주신다	
10. 합리적 설명 -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그것이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	

3) 사회적 자본-친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는 교우관계 척도를 사용하였다. 교우관계 척도는 학교적응 항목 내의 교우관계를 이용하였다. 학교적응 척도는 민병수(1991)가 제작한 초등학생용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문항을 정화실(2009)에서 재인용한 문항 중 학교행사 관련문항(5문항)을 제외하고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문항 내용은 표 3과 같으며 총 문항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4점 리커르트 척도로 1점은 매우 그렇지 않다, 4점은 매우 그렇다를 나타내어 점수가 높을수록 교우관계가 좋다.

표 3

사회적 자본-친구와의 관계 문항

문항 내용	신뢰도
1.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2.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한다	
3. 친구가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 준다	.645
4.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역)	
5. 놀이나 모둠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내 말을 잘 따라 준다	

4) 사회적 자본-교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문항 또한 학교적응 문항 항목 내의 교사관계 부분을 이용하였다. 문항 내용은 표 4와 같으며 총 문항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4점 리커트 척도로 1점은 매우 그렇지 않다, 4점은 매우 그렇다를 나타내어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좋다.

표 4

사회적 자본-교사와의 관계 문항

문항 내용	신뢰도
1.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2.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3.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849
4.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친절하시다	
5. 졸업한 다음에도 담임선생님을 찾아뵙고 싶다	

5) 사회적 자본-지역사회와의 관계

지역사회와의 관계 문항은 지역사회 인식 조사항목을 이용하였다. 해당 문항은 ADD Health(ADD Health Releases Codebook Explorer, 2009)의 항목을 변안한 뒤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문항이다. 문항 내용은 표 5와 같으며 총 문항의 평균값을 활

용하였다. 4점 리커트 척도로 1점은 매우 그렇지 않다, 4점은 매우 그렇다를 나타내어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좋다.

표 5

사회적 자본-지역사회와의 관계 문항

문항 내용	신뢰도
1.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 대부분을 알고 있다	.717
2. 나는 거리에서 우리 동네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한다	
3. 우리 동네에서는 이웃끼리 서로 경계한다(역)	
4. 나는 우리 동네가 안전하다고 느낀다	
5.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좋다	
6. 나는 우리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	

6)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 관련 문항은 Block & Kremen(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유성경과 심혜원(2002)이 번역한 뒤 수정·보완한 문항을 권지은(2003)에서 재인용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 내용은 표 6과 같으며 총 문항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4점 리커트 척도로 1점은 매우 그렇지 않다, 2점은 그렇지 않다, 3점은 그렇다, 4점은 매우 그렇다를 나타내어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다.

표 6

자아탄력성 문항

문항 내용	신뢰도
1. 나는 내 친구에게 너그럽다	.849
2.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 낸다	
3. 나는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 보는 것을 좋아한다	
4.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편이다	
5. 나는 새로운 음식을 먹어 보는 것을 즐긴다	

문항 내용	신뢰도
6. 나는 매우 에너지(힘)가 넘치는 사람이다	
7. 나는 같은 장소에 갈 때도 늘 가던 길보다는 다른 길로 가보는 것을 좋아한다	
8.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9. 나는 보통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한다	
10. 나는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11. 나는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도 금방 괜찮아진다	
12. 나는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	
13. 나는 새롭고 다양한 종류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14. 내 생활은 매일 흥미로운 일들로 가득하다	

7) 휴대전화 의존도

본 연구에서 휴대전화 의존도는 이시형 외(2002)가 개발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총 7개 문항이다. 문항 내용은 표 7과 같으며 총 문항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4점 리커트 척도로 1점은 매우 그렇지 않다, 2점은 그렇지 않다, 3점은 그렇다, 4점은 매우 그렇다를 나타내어 점수가 높을수록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다.

표 7

휴대전화 의존도 문항

문항 내용	신뢰도
1.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	
2.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3.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	
4.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865
5.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6.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7.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	

3.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휴대전화 의존도의 조절된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조절된 매개분석은 매개효과가 조절변수의 값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뜻한다. 즉, 조절변수의 정도에 따라 매개효과가 영향을 변화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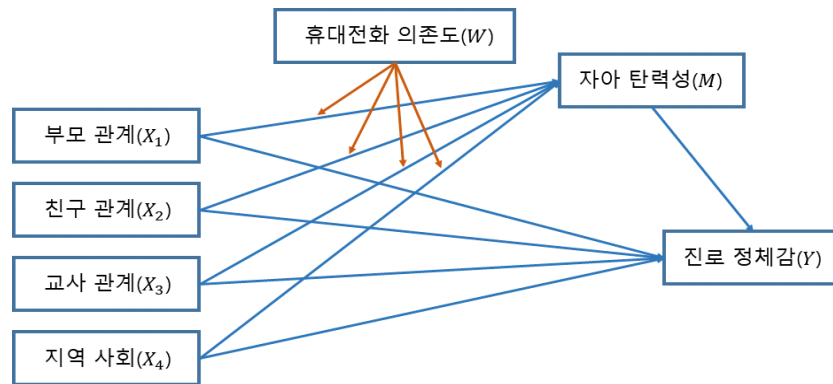


그림 1. 휴대전화 의존도의 조절효과에 따른 사회적 자본이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잠재변수 대신 측정변수를 이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는 연구모형의 복잡성으로 인해 추정 오차(estimation error)가 증가하여 잠재변수를 추정하는 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Hayes, Montoya & Rockwood, 2017). 복잡한 조절된 매개모형의 경우 측정변수를 이용하여 분석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Chew, Haase & Carpenter, 2017; Einarsen, Skogstad, Rorvik, Lande & Neilson, 2018; Frاسquilho et al., 2016).

그림 1의 모형을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 수식 1, 수식 2와 같다. 수식 1의 경우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M)에 대하여 X_1 에서 X_4 는 각 사회적 자본을 의미하며 W 는 조절변수로 휴대전화 의존도이다. a , b , c 는 각 효과크기를 의미한다. 수식 2는 진로정체감(Y)에 대하여, 각 사회적 자본이 자아탄력성(M)을 매개로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M = i_M + a_1X_1 + a_2X_2 + a_3X_3 + a_4X_4 + a_5W + a_6X_1W + a_7X_2W + a_8X_3W + a_9X_4W + e_M \quad (1)$$

$$Y = i_Y + c_1X_1 + c_2X_2 + c_3X_3 + c_4X_4 + bM + e_Y \quad (2)$$

본 연구에서는 모형에 대하여 평균 중심화를 시행하였다. 이는 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해석의 용이성을 위한 것이다(홍세희, 정송, 2014; Hayes, 2018). 평균 중심화를 함으로써 결과를 해석할 때 휴대전화 의존도(W)가 평균(0)인 경우와 평균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 대해 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평균 중심화는 독립변수(X)와 조절변수(W)에서 각 변수의 평균을 제하여 새로운 변수를 생성한 값이다. 예컨대 평균 중심화 후 위 수식 1에 대입하여 보면 a_1 은 휴대전화 의존도(W)가 평균일 때의 자아탄력성(M)에 대한 부모 관계(X_1)의 효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은 직접검증이 불가능하며, 각 계수에 대한 검증마다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Preacher & Hayes, 2008). 또한 각각의 계수가 정상분포를 따르고 있더라도 두 계수의 곱은 정상분포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신뢰구간을 도출하는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였다. 해당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조절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을 시행하기 위하여 Hayes(2018)가 개발한 PROCESS 3.4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위 식을 계산해주는 모형은 없기 때문에 가장 비슷한 Model 7을 연구자가 변환하여 시행하였다. PROCESS는 Hayes가 개발한 SPSS Macro 프로그램으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보다 수월하게 검증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이용한 각 변수들의 기술통계는 아래 표 8과 같다. 진로정체감의 평균은 3.02로 나타났고 표준편차는 0.59였다. 자아탄력성의 평균은 2.89였으며 표준편차는 0.41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의존도는 평균이 2.31이며 표준편차가 0.64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의 평균은 부모와의 관계가 2.97, 친구와의 관계가 3.14, 교사와의 관계가 2.96,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2.75로 나타났다.

표 8
기술통계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진로정체감		3.02	0.59	-0.01	0.47
자아탄력성		2.89	0.41	0.50	-0.67
휴대전화 의존도		2.31	0.64	0.19	0.03
사회적 자본	부모와의 관계	2.97	0.47	-0.29	1.02
	친구와의 관계	3.14	0.38	0.33	0.46
	교사와의 관계	2.96	0.59	-0.28	0.43
	지역사회와의 관계	2.75	0.49	0.03	0.52

2. 모형 분석 결과

1) 연구모형 분석 결과

PROCESS 분석 결과 아래 표 9와 표 10과 같이 각 변수별 결과가 나타났다. 먼저 각 사회적 자본이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직접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표 9에 나타내었다. 전체 모형의 R^2 값은 0.189이며, F 값은 91.730으로 나타났다. 이때, p 값은 0.001보다 작아 해당 모형의 효과는 유의하였다. 표 9를 반영하여

수식 2에 적용하면 수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는 각 변인의 Y 에 대한 직접 효과를 나타낸다. 직접효과의 경우 p 값으로 그 유의성을 검증한다. 표 9의 결과에 의하면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그리고 자아탄력성은 진로정체감에 직접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부모, 친구, 그리고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Y = 3.021 + 0.092X_1 + 0.13X_2 + 0.049X_3 + 0.011X_4 + 0.48M \quad (3)$$

표 9

사회적 자본이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의 직접효과

변수명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i>t</i>
상수		3.021	0.012	253.263***
사회적 자본	부모와의 관계	0.092	0.029	3.203**
	친구와의 관계	0.130	0.038	3.438***
	교사와의 관계	0.049	0.023	2.083*
	지역사회와의 관계	0.011	0.027	0.414
자아탄력성		0.480	0.035	13.900***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에 각 사회적 자본이 미치는 영향에서 휴대전화 의존도의 조절 효과에 의한 결과는 아래 표 10과 같다. 전체 모형의 R^2 값은 0.285이며, F 값은 86.908로 나타났다. 이때, p 값은 0.001보다 작아 해당 모형의 효과는 유의하였다. 표 10을 반영하여 수식 1에 적용하면 수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수식 4에 의하면 휴대전화 의존도와 지역사회와의 관계의 조절효과를 제외한 나머지 세 조절효과는 음수임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중 부모와의 관계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휴대전화 의존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M = -0.01 + 0.055X_1 + 0.324X_2 + 0.11X_3 + 0.128X_4 - 0.019W - 0.088X_1W - 0.038X_2W - 0.019X_3W + 0.008X_4W \quad (4)$$

표 10

사회적 자본이 휴대전화 의존도의 조절효과에 따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변수명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t	
상수	-0.010	0.008	-1.193	
휴대전화 의존도	-0.019	0.013	-1.487	
사회적 자본	부모와의 관계	0.055	0.019	2.937**
	친구와의 관계	0.324	0.024	13.690***
	교사와의 관계	0.110	0.015	7.340***
	지역사회와의 관계	0.128	0.017	7.388***
휴대전화 의존도*부모와의 관계	-0.088	0.025	-3.515***	
휴대전화 의존도*친구와의 관계	-0.038	0.033	-1.133	
휴대전화 의존도*교사와의 관계	-0.019	0.021	-0.899	
휴대전화 의존도*지역사회와의 관계	0.008	0.024	0.314	

* $p < .05$, ** $p < .01$, *** $p < .001$

2) 조절된 매개효과 및 간접효과 검증

표 11은 각 사회적 자본별로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한 값이다. 조절된 매개효과와 경우 간접효과이기 때문에 p 값이 아닌 Bootstrapping 결과에 따라 유의성을 검증한다. LLCI와 ULCI값의 범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1에 따르면 휴대전화 의존도의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하여 부모와의 관계만 유의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는 음의 값으로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미치는 영향력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휴대전화 의존도에 따라 부모와의 관계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반면, 친구, 교사,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휴대전화 의존도에 따라서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11

사회적 자본이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의존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변수명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부모와의 관계	-0.042	0.016	-0.074	-0.013
친구와의 관계	-0.024	0.020	-0.064	0.013
교사와의 관계	-0.011	0.014	-0.038	0.018
지역사회와의 관계	0.008	0.015	-0.030	0.030

표 12는 사회적 자본별 간접효과 값이다. 본 연구에서 조절된 매개에 대한 간접효과를 검증하였기 때문에 Pick-a-point 방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의존도 값에 따라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휴대전화 의존도와 같은 연속변수에 대한 조절효과 분석에서 PROCESS는 일반적으로 해당변수의 16퍼센트, 50퍼센트, 84퍼센트의 값을 사용하여 변수의 변화를 확인한다. 본 연구에서도 휴대전화 의존도의 16퍼센트(-0.601), 50퍼센트(-0.029), 그리고 84퍼센트(0.685) 값을 사용하여 표 12에 각 변수별 값을 도출하였다.

표 12

사회적 자본이 휴대전화 의존도의 조절효과에 따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간접효과

변수명	휴대전화 의존도	Indirect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부모와의 관계	-0.601	0.052	0.014	0.026	0.081
	-0.029	0.028	0.011	0.007	0.049
	0.685	-0.003	0.015	-0.033	0.026
친구와의 관계	-0.601	0.166	0.021	0.127	0.209
	-0.029	0.156	0.018	0.122	0.192
	0.685	0.143	0.023	0.097	0.188
교사와의 관계	-0.601	0.058	0.013	0.033	0.085
	-0.029	0.053	0.010	0.035	0.073
	0.685	0.047	0.014	0.022	0.076
지역사회와의 관계	-0.601	0.059	0.014	0.032	0.089
	-0.029	0.061	0.011	0.040	0.084
	0.685	0.064	0.016	0.034	0.096

부모와의 관계의 경우,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는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휴대전화 의존도가 낮은 경우에는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휴대전화 의존도가 낮은 경우에는 매개효과가 유의하고,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는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으므로 휴대전화 의존도의 조절효과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림 2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친구, 교사,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는 휴대전화 의존도의 정도와 관계없이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림 2는 부모와의 관계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휴대전화 의존도의 조절효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는 Pick-a-Point 방식으로,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은 경우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부모와의 관계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기울기가 음수로 거의 영향력이 없었다. 하지만 휴대전화 의존도가 중간(-0.029) 정도이거나 낮은(-0.601) 경우 부모와의 관계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대전화 의존도가 낮을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으면, 부모와의 관계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휴대전화 의존도가 낮을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울기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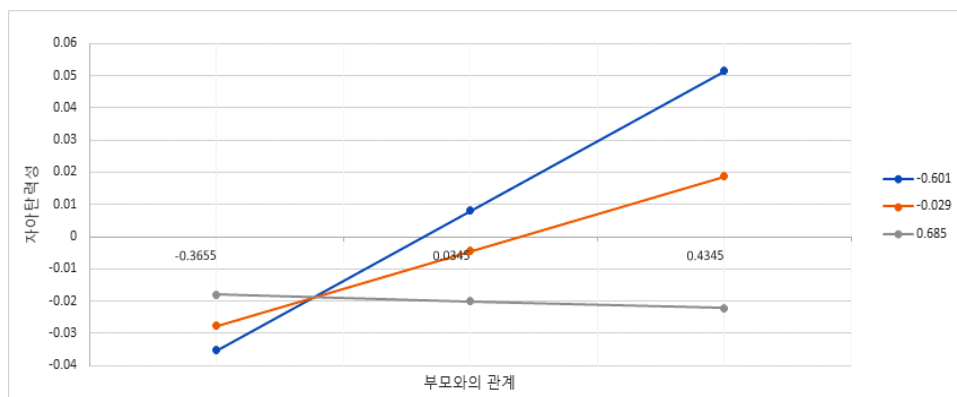


그림 2. 부모와의 관계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휴대전화 의존도의 조절효과 그래프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으며 해당 관계에서 휴대전화 의존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자본과 진로정체감의 직접효과를 살펴보면, 지역사회를 제외한 부모, 친구, 교사의 세 영역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의 관계와 진로정체감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박미려, 양은주, 2017), 친구 관계(김성경, 2015)와 교사와의 관계(박은정 외, 2016)가 긍정적인 영향을 유의하게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 김영애(2018)는 지역사회의 참여, 체험학습이 진로정체감 형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박태원(2019)은 교사, 친구, 지역사회와 자아탄력성이 진로정체감에 직접적인 정적 효과가 있음을 밝혀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지만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둘째, 사회적 자본과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간접효과 및 매개효과 의 경우 네 영역 모두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의 효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인 양육태도(김경수, 김화경, 2011), 친구, 교사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으면 자아탄력성에 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황여정, 김경근, 2014)와 일치하는 연구 결과이다. 또한 자아탄력성이 진로정체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유화영(2018)의 연구를 뒷받침한다. 즉, 부모, 교사, 친구, 지역사회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으며, 이는 교사, 친구, 지역사회와 진로정체감,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박태원(201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자본의 긍정적인 영향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도 높아지며 이에 따라 진로정체감도 높아짐을 뜻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사회적 자본으로부터 진로정보뿐 아니라 심리적 자원을 얻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는 자기 격려, 유능감 등의 기본 심리적 자원을 강화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 정서를 회복하고 꾸준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자아탄력성에 기여한다. 그 결과 진로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환경적, 심리적 걸림돌을 극복하고 안정된 진로정체감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 고3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타인과 동떨어져 독립적으로 고민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로상을 형성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이 잘 갖춰져 있을수록 자신의 가치관, 목표,

정보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아 수정하는 과정이 원활하여 높은 진로정체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사회적 자본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휴대전화 의존도의 조절효과에 따라 분석한 결과, 부모와의 관계만이 유의하였다. 친구, 교사, 지역사회와의 관계 각각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는 휴대전화 의존도로 조절되지 않았던 반면 부모의 영향력은 휴대전화의 의존도에 따라 바뀐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 중독이 부모와 자아탄력성과 관련이 높음을 보고한 정경아와 김봉환(2015)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분석결과에서 휴대전화 의존도는 음의 조절효과 계수로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가 줄어들었다. 김해성과 조미숙(2019)도 스마트폰 의존도 초기값이 사회적 자본에 부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고 본 연구결과는 이와 유사하였다.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이라도 휴대전화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학생의 자아탄력성은 높아지지 않는 것이다. 즉,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친구와의 관계가 휴대전화 의존도에 따라 부정적(김병년, 2018) 또는 긍정적(송병국 외, 2017)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와 다르게 친구와의 관계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휴대전화 의존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교사,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이 휴대전화의 의존도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이는 모상현(2018)의 청소년의 친구, 교사 관계가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넷째, 사회적 자본이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휴대전화 의존도의 조절효과에 따라 분석한 결과도 부모와의 관계만 유의하였다. 친구, 교사,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이 휴대전화 의존도로 조절되지 않았다. 이는 스마트폰 의존도 초기값이 사회적 자본과 진로정체감에 부적 영향이 있음을 확인한 김해성과 조미숙(2019)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자아탄력성과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자아탄력성과 최근 청소년의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휴대전화 의존도가 청소년들의 진로정체감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

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휴대전화 의존도가 여러 사회적 자본 중, 부모와의 관계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미한 조절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도출해냈다. 하지만 기존 패널 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자료를 분석하는데 있어 보다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못했으며, 2020년 현재 청소년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는 제한점이 있다. 모상현(2018)의 결과에서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휴대전화 의존도가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점을 살펴보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 이에 대한 검증을 한다면 보다 유의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청소년기 학생들은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까지 여러 사회적 영역에서의 교류를 기반으로 자아탄력성을 형성한다. 더 나아가 자아탄력성은 진로 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당 과정에서 휴대전화 의존도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를 낮추고 진로 계획을 세워 우리 사회 안에서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기여할 수 있는 정체성과 역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참고문헌

- 강현아 (2007).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35, 145-165.
doi:10.16999/kasws.2007..35.145
- 공인규 (2008). **Holland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학습부진아의 진로성숙도, 진로효능감, 진로 정체감 및 진로장애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권지은 (2003). **부모 및 또래 애착, 문제해결방식과 자아탄력성(Ego-Resiliency)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오형, 문재우 (2018).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이 휴대전화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와 성별 조절효과와의 융합적 접근. **융합정보논문지(구 중소기업융합학회논문지)**, 8(4), 145-152. doi:10.22156/CS4SMB.2018.8.4.145
- 김경수, 김화경 (2011). 부모의 양육태도가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 19(2), 143-170.
- 김민주, 김민정, 이선희, 도현심 (2018).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자아존중감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의 매개효과. **열린부모교육연구**, 10(2), 273-295.
- 김병년 (2018). **청소년기 휴대전화 의존 변화궤적의 잠재계층유형 예측요인과 발달산물: 잠재계층성장분석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성경 (2015).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의 경로모형 연구. **한국 아동복지학**, 51, 23-46.
- 김영애 (2018). 청소년의 체험활동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활동연구**, 4(1), 21-41. doi:10.36697/skya.2018.4.1.21
- 김지연, 이기학 (2014). 자아탄력성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7(3), 1-25.
- 김진아 (2019). 청소년기 진로정체감의 종단적 변화 및 예측요인 검증. **청소년학연구**, 26(9), 217-246. doi:10.21509/KJYS.2019.09.26.9.217
- 김해성, 조미숙 (2019). 청소년의 결속적 사회자본과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에 관한 종단 연구: 스마트폰 의존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47, 129-154. doi:10.20993/jssw.47.5

- 노민정, 유진은 (2019). Adaptive LASSO를 통한 진로결정 관련 변수 탐색. **열린교육연구**, 27(4), 133-155. doi:10.18230/tjye.2019.27.4.133
- 모상현 (2018). 우울이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또래애착 및 학교 내 관계유형 요인의 조절효과 비교. **청소년학연구**, 25(8), 55-80. doi:10.21509/KJYS.2018.08.25.8.55
- 민병수 (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길성 (2001).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실태 및 영향. **청소년보호위원회 학술세미나. 컴퓨터 게임과 휴대전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23-46.
- 박미려, 양은주 (2017). 부모방임, 또래애착이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을 매개로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4(1), 263-284. doi:10.21509/KJYS.2017.01.24.1.263
- 박은정, 이유리, 이성훈 (2016). 부모의 소득계층별 청소년의 사회자본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3(5), 237-263.
- 박태원 (2019). **학교 및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이 저소득층 학생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배성만 (2018). 스마트폰 사용 유형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5(1), 205-223. doi:10.21509/KJYS.2018.10.25.10.205
- 백은경, 정은정 (2017).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4(9), 339-362. doi:10.21509/KJYS.2017.09.24.9.339
- 선혁규, 백종수 (2015). 스포츠 활동 참여가 스마트폰 중독에 따른 중학생의 우울, 공격성 및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0(1), 107-123. doi:10.15831/JKSSPE.2015.20.1.107
- 송병국, 최창욱, 조혜영, 오민아. (2017).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4(7), 303-331. doi:10.21509/KJYS.2017.06.24.7.303
- 양돈규 (2003). 청소년의 인터넷중독경향에 따른 대인관계활동 및 만족도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10(3), 481-500.
- 에듀동아 (2018.03.23.) 심각한 청소년 SNS 중독! SNS 중독 자가진단법과 예방법을 알아보자!(<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4133569>)

&memberNo=35594443&vType=VERTICAL).

- 오정아, 정운태 (2015).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이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도·농간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2(9), 49-77.
- 유성경, 심혜원 (2002).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교육심리연구**, 16(4), 189-206.
- 유화영 (2018). 농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자아탄력성, 진로정체감,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 **한국청소년상담학회지**, 3(2), 63-81.
- 윤초희 (2015).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기본 심리 욕구의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6(4), 129-154.
- 이경선, 남현우 (2011).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가족건강성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순천향인문과학논총**, 30, 233-256.
- 이상길 (2006). 담임교사와의 대화공감도를 비롯한 학교 변인과 고교생의 진로정체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3), 613-627.
- 이시형, 김학수, 나은영, 이세용, 김선남, 배진한 (2002).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과 그 영향에 관한 연구**(제2002-1호). 서울: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이진구, 이기학 (2019). 대학생의 부모애착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 진로 탐색행동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20(5), 83-105. doi:10.15703/kjc.20.5.201910.83
- 이현주 (2010). 부모의 진로관련행동 및 애착과 남녀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의 관계. **진로 교육연구**, 23(1), 41-59.
- 정경아, 김봉환 (2015).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수준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부모양육태도 불일치의 차이. **디지털융복합연구**, 13(2), 299-308. doi:10.14400/JDC.2015.13.2.299
- 정화실 (2009). **초등학생의 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이 낙관성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한익, 김영숙 (2016). 청소년의 미래지향목표와 자아정체감, 공동체의식 및 진로 정체감의 종단적 구조관계. **한국교육심리학회지**, 30(4), 783-810. doi:10.17286/KJEP.2016.30.4.06
- 허보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홍세희, 정승 (2014). 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에서의 상호작용효과 검증: 이론과 절차.

- 인간발달연구, 21(3), 1-24. doi:10.15284/kjhd.2014.21.4.1
- 황여정, 김경근 (2014). 중학생의 자아탄력성 영향요인 분석: 사회심리학적접근. **교육 사회학연구**, 24(1), 205-229. doi:10.32465/ksocio.2014.24.1.008
- Add Health Releases Codebook Explorer (2009). Add Health. Retrieved February 1, 2020, <https://www.cpc.unc.edu/projects/addhealth/documentation/ace/tool/>
- Block, J. H.,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 (Ed.), *Development of cognition, affect, and social relations: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13, pp. 39-101).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Block, J., & Gjerde, P. F. (1990). Depressive symptoms in late adolescence: A longitudinal perspective on personality antecedent. In J. Roff, A. S., Masten, D. Dicchetti, K. H. Neuchterlein, & S. Weintraub (Ed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pp. 334-360).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doi:10.1017/cbo9780511752872.020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49-361. doi:10.1037/0022-3514.70.2.349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Westport: Greenwood Press.
- Chew, J., Haase, A. M., & Carpenter, J. (2017). Individual and family factors associated with self-esteem in young people with epilepsy: A multiple mediation analysis. *In Epilepsy & Behavior January*, 66, 19-26. doi:10.1016/j.yebeh.2016.09.039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doi:10.1016/b978-0-7506-7222-1.50005-2
- Einarsen, S., Skogstad, A., Rorvik, E., Lande, A. B., & Nielsen, M. B. (2018). Climate for conflict management, exposure to workplace bullying and work engagement: a moderated mediation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29(3), 549-570. doi:10.1080/09585192.2016.1164216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Frasquilho, D., de Matos, M., Marques, A., Neville, F., Gasper, T., Caldas-de Almeida, J., & de Matos, M. G. (2016). Unemployment, parental distress and youth emotional well-being: The moderation roles of parent-youth relationship and financial deprivation.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47(5), 751-758. doi:10.1007/s10578-015-0610-7
- Hayes, A. F., Montoya, A. K., & Rockwood, N. (2017). The analysis of mechanisms and their contingencies: PROCESS vers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ustralasian Marketing Journal*, 25, 76-81. doi:10.1016/j.ausmj.2017.02.001
- Hayes, A. F. (2018).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2nd ed.).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 doi:10.1002/9781118901731.iecrm0038
- Holland, J. L. (1997). *Making vocational choices: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Preacher, K. J., & Hayes, A. F. (2008). Asymptotic and re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40(3), 879-891. doi:10.3758/brm.40.3.879
- Portes, A.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1-24. doi:10.1016/b978-0-7506-7222-1.50006
-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In L. Crothers, & C. Lockhart (Eds.), *Culture and Politics* (pp. 223-234). Palgrave Macmillan, New York. doi:10.4324/9780429261732-19
- Steinfeld, C., Ellison, N., & Lampe, C. (2008). Social capital, self-esteem, and use of online social network sites: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9(6), 434-445. doi:10.1016/j.appdev.2008.07.002
- Yoo, C. (2018).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bonding social capital: Risk and protective roles of 'bonding social capital and academic stress' according to specific situations in South Korean adolescents. *Child Indicators Research*, 11(1), 245-261. doi:10.1007/s12187-016-9433-8

ABSTRACT

The effect of the social capital of adolescents on career identity: The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mobile phone dependence

Bae, Sangyoung* · Kang, Younkyung* · Ahn, Soyoung** · Hong, Se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vels of adolescent's social capital with ego-resilience as a mediator in the process of influencing their career identity. In particular, the study focused on different mediation effects, depending on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mobile phone dependence.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2351 12 graders in 2015. The study produc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ir relationship with parents, friends, and teachers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career identity. Second,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their career identity through ego-resilience was significant. Third, the effect of their relationships with their parents on ego-resilience was different depending on their mobile phone dependence. Forth, there was a moderated mediating effect in the process of influencing ego-resilience, but only through the relationship with parents, the influence of the mobile phone dependence. This study confirmed the influence of social capital on career identities, and revealed that if mobile phone dependence is high, relationships with parents do not have a positive effect on ego-resilience or career identities.

Key Words: career identity, social capital, ego-resilience, mobile phone dependence, moderated-mediation effect, KCYPS 2010

투고일: 2020. 3. 8, 심사일: 2020. 5. 7, 심사완료일: 2020. 5. 14

* Ph.D. Student, Department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seheehong@korea.ac.kr